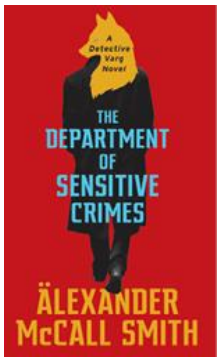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DEPARTMENT OF SENSITIVE CRIMES
가제 : 민감 범죄 수사부
저자 : Alexander Mccall Smith
출판사: Little, Brown(UK), Pantheon/ PRH(USA)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코믹스릴러소설

*** BBC 드라마로도 제작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리즈 『넘버원 여형사 에이전시』의 작가가 선보이는 새로운 시리즈 - 북유럽 사람들의 특징을 섬세하고 미묘하게 집어낸 코믹 스릴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갖 사건들을 유능한 형사가 예리한 시선과 통찰로 해결해나가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더운 아프리카 마을의 탐정, 그것도 여자 탐정의 활약을 그린 소설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준 작가가 또 다시 기발한 형사 시리즈로 돌아왔다. 이번에 그가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은 30대 후반의 스웨덴 토박이 형사로, 말모라는 작은 도시 경찰서에서 그리 위협적이지 않지만 별의별 방식으로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수사하는 '민감 범죄수사팀' 소속이다. 바그와 한 팀에서 일하는 개성 넘치는 인물들과 이들이 꼼꼼하게 해결해나가는 독특한 사건들이 위트와 따스한 감성, 기발함이 골고루 섞인 작가 특유의 글을 통해 펼쳐진다. 스칸디나비어 고어로 '늑대'라는 뜻인 '울프'와 현대 스웨덴어로 역시나 늑대를 뜻하는 '바그'가 합쳐진 울프 바그라는 이름의 사납고 강인한 이미지와 달리 너무나 인정 많은 주인공의 특별한 매력이 기이한 사건 못지않게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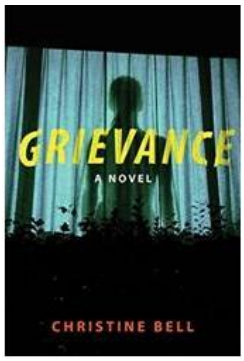
아주 짧게 끝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원인 모를 우울증에 시달리는 애완견, 마르텐과 단 둘이 살고 있는 바그는 민감 범죄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북유럽에 사는 개들은 쉽게 울적해지기 쉽다지만 겨울도 아닌 한여름에 이상하게 축 쳐져 있는 마르텐이 신경 쓰이면서도, 바그는 일단 하루도 빠짐없이 팀에 접수되는 요상한 범죄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한다. 사무실에서 책상도 서로 맞닿아 있고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동료 형사 안나도 같은 팀 소속이다. 마취과 전문의와 결혼하고 별로 불만이랄 것도 없었던 안나는 날이 갈수록 바그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고 적잖이 당황한다. 과연 이 마음이 바그를 향한 것인지, 바그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를 향

한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안나와 달리, 바그든 다른 팀원 누구에게든 별 관심이 없는 또 한 명의 형사, 칼도 이 팀의 소속이다. 사건과 관련된 일 외에는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칼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성실한 직원이라 좀 무심하고 무뚝뚝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온통 낚시 생각뿐이라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든 플라잉 낚시 이야기를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에릭도 민감 범죄수사팀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네 명의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인 팀에, 지구대에서 의뢰한 사건이 접수된다. 블롬퀴스트라는 경찰이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은, 바그가 주기적으로 찾아가 심리 상담을 받는 의사조차 듣자마자 깜짝 놀란 이상한 사건이었다. 시내 한복판에서 옷과 스카프를 파는 가게 주인이 알 수 없는 사람이 휘두른 칼에 찔려 다친 사건인데, 문제는 다친 부위가 무릎 뒤라는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길가에 스웨터와 스카프를 진열해놓고 오가는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작은 가게였다. 바그와 안나를 현장으로 안내한 블롬퀴스트는 목격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도 아닌 무릎 뒤를 칼로 찌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피해자는 기계공으로 할리 데이빗슨 같은 고급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다가 피부에 심각한 습진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둔 말테라는 사람이었다. 바그와 안나는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한 말테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사건 당일의 상황과 말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철도회사 직원인 말테의 동생은 퇴근하고 곧장 형의 가게로 와서 일손을 도왔고, 그 날도 사건이 일어나고 10분 정도 지난 뒤에 도착해서 구름 떼처럼 몰린 인파 속에 쓰러진 형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이 가게는 손님이 밖에 걸린 스카프를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면 가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걸쳐보거나 계산하는 일이 잦은데, 범인은 칼을 그렇게 스카프 속에 숨기고 들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다. 특별히 원한 관계도 없고, 원한이 있다 해도 왜 하필 무릎 뒤를 찔렀는지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바그와 안나는 말테의 지난 삶에 주목한다. 바그는 그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한창 고치던 시절, 공장에서 쓰고 남은 부품들을 모아다가 아예 오토바이 한 대를 새로 만든 적이 있고 이를 못마땅해 하던 오토바이 광들이 있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안나는 예전 직업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말테가 갑자기 비누만 쓰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생기고 스테로이드 연고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업을 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추정한다. 유치원 교사인 말테의 아내와 낙농장을 운영하는 아내의 오빠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었다. 소설은 이 사건과 더불어 실존하는지 영 의심스러운 남자친구가 사라졌다며 신고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와 한밤 중에 초자연적 존재가 자꾸 찾아온다는 신고가 접수된 마을의 어느 스파 시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범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알렉산더 맥콜 스미스(Alexander Mccall Smith)는 BBC 드라마로도 제작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넘버원 여형사 에이전시(The No.1 Ladies' Detective Agency)』 시리즈와 『Isabel Dalhousie』, 『44 Scotland Street』 시리즈 등 80여 편의 작품을 쓴 소설가다. 발표한 소설은 46개 언어로 번역됐다. 현재 에딘버러 대학교 의료법 교수를 맡고 있으며 13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목 : GRIEVANCE
가제 : 비탄
저자 : Christine Bell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7월 1일
분량 : 284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실크처럼 부드럽게 펼쳐지며 독자들을 절망적인 대단원으로 이끄는, 상실에 관한 흡입력 있는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이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고들 생각한다. 흔히 '정신이 없다'고 표현하는 상황들,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다른 건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대다수가 생각하지만, 그 '경계'는 어디일까?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범위이고, 어디서부터 정신질환의 영역일까? 스물두 살부터 한 시도 떨어진 적 없이 서로를 사랑했던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두 아들과 남은 릴리는 남편을 묻고 10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 경계를 생각한다. 때로는 길가에서 남편 데스몬드와 꼭 닮은 남자가 지나가는 것 같아 얼른 다가가려다가 아닌 것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남편이 죽었다는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가 한참 지난 뒤에야 깨닫고 허망해하기도 한다. 일년 여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따라다니는 환각과 환청, 착시 현상이 릴리 자신도 두려웠지만 너무 큰 슬픔을 겪으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들만 돌아왔다. 그렇게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며 꾸역꾸역 살아가던 어느 날, 릴리에게 그저 착각이라고 넘길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시작은 발렌타인데이에 도착한 핑크색 편지였다.

데스몬드가 살아 있을 때, 발렌타인데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랑으로 꽉 채워졌다. 다정하고 로맨틱한 남편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카드와 꽃을 선물했고, 릴리는 그가 좋아하는 컵케이크를 정성 들여 만들어서 건네곤 했다. 저녁에는 베이비시터를 불러 두 꼬마를 맡기고 단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 오페라 가수였던 데스몬드는 청혼할 때도 <카르멘>에 나오는 황홀한 아리아를 열창했고, 릴리 역시 민속사학 중에서도 잊혀져 가는 민속 음악을 찾아 디지털 음원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라 두 사람에게 음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발렌타인데이에도 사랑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데스몬드 없이 처음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한 릴리는 전날부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유독 귀를 기울이며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랬다. 그러니 각종 고지서와 광고전단 속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분홍색 봉투를 발견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편지에는 릴리의 속을 확 뒤집어놓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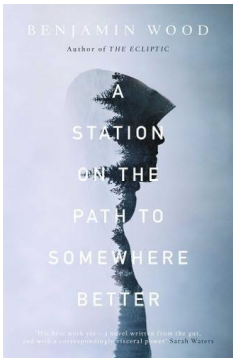
편지를 보낸 사람을 자신을 재스민이라고 소개했다. 시카고에서 나고 자란 데스몬드와 대학 때 '소울메이트'였고, 졸업생에게 매달 날아오는 소식지를 보고서야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어떻게

10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탄했다. 워낙 친했으니 데스몬드가 분명 자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확신에 찬 말도 웃겼지만, 그와 가장 가까웠던 자신과 아내인 릴리가 '함께 그를 기리고 추모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은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이 재스민이라는 여자는 꼭 답장을 해 달라고, 연락하고 '지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혹감과 불쾌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릴리는 애써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냥 무시하자고 다짐했지만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갔다. 편지가 온 날, 끔찍한 악몽을 꾼 것으로 모자라 다음 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데스몬드의 식구들은 평소 서로의 사생활을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편이라 재스민의 말대로 '소울메이트'였다면 절대 모를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부모님 중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장난 편지라고 하기에는, 편지에 언급된 데스몬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었다. 대체 재스민은 누구이고,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몸조차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절망했던 시간을 겨우 흘려 보내고 두 아이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서 살아보자고 마음 먹은 릴리는 또 한 방의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다.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데스몬드의 남동생, 크레이그의 결혼식 때문에 시카고를 방문한 릴리는 형제들과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닌 이웃이자 데스몬드의 여동생 디드레의 친구라는 니아를 소개 받는다. 결혼식에 온 다른 손님들을 챙기느라 시댁 식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이, 니아는 릴리에게 다가와 유독 친근하게 군다. 급기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괜찮다는 릴리를 기어이 차에 태운 니아는 남편이 많이 아파서 잠깐 살펴보고 가야겠다면서 릴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얼떨결에 처음 보는 사람의 집안까지 들어간 릴리는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침대에 덩치 큰 남자가 꼼짝도 못한 채로 누워 있었다. 니아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이 지경이 되었다며 그가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알아들을 리 없다'고 단언하면서 상스러운 표현을 써 가며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릴리를 향해, 남편 잃었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구시는데 더 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당황한 릴리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와버리지만, 분노가 가득한 니아의 두 눈이 계속 따라다니는 기분을 느낀다. 페이스북에 데스몬드의 죽음을 추모하는 페이지가 갑자기 생기고, 아이들과 외출했다 돌아오면 누군가 잔디를 다 손질해놓는 것으로 모자라 집안까지 누가 들어와 청소를 해 놓은 흔적까지 발견되자 릴리의 인내심은 무너진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아주 미묘하게, 증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벌어져 주변 사람 누구도, 가족들까지도 제대로 믿어주지 않자 릴리 스스로도 너무 슬퍼하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든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는 결말까지 서서히 타오르며 책장을 계속 붙들게 만드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벨(Christine Bell)은 영화 옵션도 판매된 데뷔 소설 『Saint』로 많은 호평을 얻었다. 두 번째 소설 『The Perez Family』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미국도서관협회와 뉴욕 공공도서관협회로부터 '올해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됐다. 40여 편의 로맨스, 에로틱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 : A STATION ON THE PATH TO SOMEWHERE BETTER
가제 : 좋은 곳으로 가는 길에 들른 간이역
저자 : Benjamin Wood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18년 6월 28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프랑스, 러시아 판권 계약
* "극단적 폭력과 그로 인한 복잡한 여파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 놀라움과 통찰로 꽉 채워진, 생생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소설이다" - 배우 이완 맥그리거
* "우아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소설. 누군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긴장과 충격을 능숙하게 그려냈다" - 「가디언」

때로는 며칠씩, 심지어 몇 주가 별다르게 기억할 것도 없이 흘러가기도 하는 인생이지만, 단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소설 속 주인공 대니얼에게는 열두 살이던 1995년 8월의 며칠이 그랬다. 가지 말았어야 하는 여행, 그냥 포기했어야 했던 여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대니얼은 이미 가족들, 주변 지인들 모두에게 거짓과 위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아버지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그가 제안한 짤막한 여행에 동행한다. 방송 세트를 제작하는 전문 목수였던 대니얼의 아버지 프랜시스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더 아티펙스'라는 드라마에 참여했고 아들이 그 드라마를 그저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촬영 현장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아무리 아버지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사고만 치는 존재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20여 년이 지난 후, 대니얼은 그 날을 회상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쓰지만 소용없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물려 받은 성부터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을 만큼,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줄 알았던 그 여행은 평생 지우려 해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충격만 남은 시간이 되고 말았다. 떨칠 수 없는 그 날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너무 놀라고 믿을 수 없어 조각조각 사라져버린 기억을 되찾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해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한 대니얼은 애써 지우려 했던 1995년 8월로 돌아가 멀쩡하게 현관을 나섰던 그 날부터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엄마와 아빠는 이미 따로 산 지 오래였다. 대니얼이 열 살 정도일 때 이미 엄마가 수십 장이나 되는 쓰레기봉지에 아빠의 옷가지며 물건을 담아 내다 버리는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그의 아버지 프랜시스는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찰싹 붙어서 계속 두 눈을 맞추고 장난을 걸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지

만, 정말 그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어린 아들을 술집에 데려가 의자에 앉혀놓고 한쪽 구석에서 진한 화장을 한 여자들과 시시덕거릴 때, 대니얼이 다 보고 듣고 있는 앞에서 엄마를 향해 손가락을 휘두르며 험한 말을 쏟아낼 때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이었다. 거짓말, 사기, 변명, 핑계의 달인이던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이 눈 앞에서 들통난 순간일지라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끝까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 가족이든 친구든, 상처 받고 피해를 보고 괴로워해도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한 그 날이 오기 전부터 엄마는 대니얼에게 정작 당일에 아빠가 아예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며 대비를 시켰다. 그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원래 너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안 오면 엄마랑 재미 있게 놀면 돼, 쉴 새 없이 이런 말을 해대는 엄마가 야속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빠는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각에 정확히 현관에 나타났다.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잔 대니얼은 며칠 전에 다 싸놓은 가방을 얼른 집어 들고 두 눈에 걱정이 가득한 엄마를 뒤로 한 채 차에 올랐다. 그게 엄마와 영영 이별한 날이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다급히 차에 타지 않았을 텐데, 대니얼은 그 순간 서두른 자신을 평생 원망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 휴게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불안한 징후가 나타났다. 대니얼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아빠는 전화로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원래 소극적인 성격이던 대니얼은 낯선 곳에서 혼자 남겨질 까봐 잔뜩 겁을 먹은 채로 아빠를 찾아 다니다가 대화의 일부를 듣게 되었다. QC라는 이름이 그 때 처음 등장하고, 아빠는 욕설을 섞어가며 무언가에 잔뜩 화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도 그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아빠의 말을 믿고 싶었던 대니얼은 한참 지난 후, 아빠가 약속한 촬영장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QC라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여행이 이어질수록 겹겹이 드러나는 아빠의 진짜 모습, 어린 대니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진실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집 곳곳에 움푹 패어 있던 주먹 자국이나 부서진 세간을 보며 짐작했던 아빠의 폭력성도 있는 그대로 대니얼의 눈 앞에 드러난다. 그 며칠 간의 끔찍했던 여행에서 대니얼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자물쇠로 잠긴 작은 공간에 갇혀 물도 못 마시고 오줌도 그대로 눠야 했던 공포의 시간이 지나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환한 빛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나온 그 순간과 엄마도 아빠도 산 속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다. 이제 성인이 된 대니얼은 조각난 기억과 당시의 목격자 진술 기록, CCTV 자료를 모두 모아 자신도 모르게 지워져 버린 그 날의 진실을 파헤친다. 기억, 그리고 무의식적인 기억의 왜곡,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벤자민 우드(Benjamin Wood)는 런던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데뷔소설 『The Bellwether Revivals』로 코스타 데뷔소설 상, 영연방 도서상 결선에 오르고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상인 Le Prix du Roman Fnac를 수상했다. 두 번째 소설 『The Ecliptic』은 앙코어 상(Encore Award) 후보로 선정됐다. 2016년에는 선데이타임즈 젊은 작가 상(PFD Young Writer Award) 결승에 올랐다.

제목 : THE CHURCHGOER
가제 : 교회 신도
저자 : Patrick Coleman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19년 7월 30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느와르/소설

*** 신앙과 도덕, 현대인의 삶에 존재하는 악마에 관한 인상 깊은 소설**

동이 트고 해변에 수많은 인파가 빼곡히 자리를 잡기 전, 새벽 바다에서 작은 보드에 몸을 의지하고 스릴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 마크 하인스는 캘리포니아에 여름이 찾아올 때마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녘에 바다로 향한다. 인근에 형성된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에게는 일을 마치고 한바탕 보드를 탄 뒤 아침식사도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 푹 쉬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었다. 딱히 행복하거나 풍족한 삶은 아니어도 돌봐야 할 가족도 없고 신경 써야 할 골칫거리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면 그에게는 충분했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보드를 타고 도로변의 단골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다가 건너편 도로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한 날, 그의 지루하리만치 잔잔했던 삶에 또 다시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이미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혼란을 과거로 남기고 멀리 떠나와 아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던 마크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 잠깐의 판단 착오와 별 것 아닌 실수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뒤바꿀 수 있는지 나중에야 깨닫는다. 하지만 신디라는 이름의 그 독특한 아가씨와 처음 만난 그 날에는 뒤에 이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여름에는 해안가 동네답게 워낙 뜨내기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도로변에 서서 히치하이킹하는 젊은이들을 못 보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신디가 단지 엄지를 치켜세우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를 종이를 흔들며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난히 마음에 쓰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마크가 그저 묵묵히 앞에 놓인 부리토와 커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창밖에 보였던 그 짧은 단발머리의 아가씨가 음식점 계산대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스 출신인 주인장은 거세게 손을 휘저으며 짧은 영어로 곤란하다,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만히 들어보니, 지갑을 도둑맞았다며 뭐라도 먹을 것을 좀 달라며 사정을 하는 눈치였다. '내가 도와줘야 하나?' 마크는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심지어 찾아 다니기도 했던 기억이 슬며시 깨어나자 순간 불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경비원으로, 젊지 않은 나이에 파도타기를 즐기는 스포츠맨으로 살기 전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냥 신자가 아니라, 목사였다.

주춤하던 마크가 신디에게 밥을 사주기로 마음 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신앙에 푹 빠져 살던 그 시절에 만난 젊은 여성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네킹처럼 온화한 표정이 바뀌지 않았던 신도, 살랑살랑 조용한 걸음으로 곳곳에 모인 신도들 틈에 섞여서 기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경험한 믿음의 신비로운 힘을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깨를 다독이던 그

신도에게 당시 마크는 대뜸 질문을 던졌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이렇게 행동하나요?”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뜬금없이 남을 곤란하게 만든 것부터가 이미 신앙에 미세한 금이 생겼음을 암시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마크의 도발적인 물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는 혼자일 수 없어요. 늘 그 분이 곁에 계시니까요.’라고 울먹이던 그 여자의 얼굴이 무수히 많은 세월이 지나 처음 본 히치하이커의 얼굴과 겹쳐지다니. 마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점 주인을 붙들고 계속 애원하던 히치하이커에게 밥을 사준다. 많아 봐야 스물 두셋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아가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허겁지겁 사준 음식을 먹어 치웠다. 차를 얻어 타고 시애틀로 가서 관광을 하고 싶다는 신디와 그렇게 헤어지면서 보름 내에 그 근처로 갈 일이 있는데 혹시 그 때까지도 해변을 서성이고 있다면 태워주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또 볼 일이 있겠나, 싶었지만 얼마 뒤 신디는 또 다시 마크 앞에 나타난다.

마크를 먼저 알아보고 큰 소리로 아는 척을 한 신디는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며 대뜸 파도타기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 해변에 널린 젊은이들에게 가서 배우면 될 것을, 왜 자신처럼 늙은 사람에게 와서 이러는지 좀 의아하긴 했지만 마크는 선뜻 그러겠다고 한다. 그런데 짧은 레슨이 끝나고, 신디는 더 대범한 부탁을 한다. 잘 곳이 없으니 이틀만 재워달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한 마크는 마지못해 신디를 집으로 데려간다. 딱 이틀만 머물게 할 생각이었다. 집에 신디만 두고 야간 경비 일을 하러 출근한 마크는 순찰을 돌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숨죽여 몸을 숨긴다. 공장과 상점이 뒤섞인 복합 건물 한쪽에 강도간 든 것 같았다. 그 날 함께 근무하던 동료 마이크에게 무전을 치려 했지만 족히 4-5명은 되는 듯한 침입자들이 상점 한 쪽에 너무 가까이 몰려 있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일단 빠져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은 마크는 살금살금 비상계단 쪽으로 달아나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마크는 다음 날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린다.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고, 마이크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방수포에 둘둘 말린 시체로 발견됐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마크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있을 때 뒤이어 순찰을 돌다가 변을 당한 모양이었다. 충격을 떨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마크는 신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침내 갈 곳이 생겨서 떠났다고만 생각했던 마크는 사건 조사가 이어질수록 그 날의 강도, 살인 사건과 신디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갖기 시작한다.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단서를 쫓던 마크는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를 손아귀에 쥔 마약 거래 집단,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대형 교회의 실체를 발견한다. 아주 오래 전, 아내와 딸까지 있었던 그가 가족 모두를 등지고 떠난 곳, 교회가 다시 그의 삶에 끼어든 것이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깊이 묻어둔 과거가 다시 깨어나 발목을 붙잡지만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마크의 험난한 여정을 계속되고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패트릭 콜먼(Patrick Coleman)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Hobart, ZYZZYVA, Zócalo Public Square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데뷔작인 시집 『Fire Season』으로 2015년 버크셔 상(Berkshire Prize)을 수상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STRANGER INSIDE
가제 : 침입자
저자 : Laura Benedict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9년 2월 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소설

*** 독일, 터키 판권계약 / 에드가 상, ITW 스릴러 상 후보로 선정된 작가의 신작**
*** "작가 특유의 글 솜씨가 돋보이는 우아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Lie to Me』 의 작가 J.T. 엘리슨**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느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4일이 지나고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돌아온 킴버는 현관문을 열려다가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차고 열쇠나 다른 열쇠를 끼웠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얼른 정신을 가다듬은 킴버는 손에 쥔 것이 분명히 현관문 열쇠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하지만 열쇠구멍에 맞지 않았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킴버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멍하니 집을 바라본다. 고급스러운 2층 주택, 큰 창문 안으로 보이는 부엌의 모습과 익숙한 발코니, 집을 잘못 찾아온 것도 아니다. 문득 집 뒤편에 이사온 날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지하실과 연결된 문을 떠올린 킴버는 서둘러 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열쇠꾸러미 속에서 그 뒷문 열쇠를 찾아내서 얼른 끼워보지만 소용없다. 그 때, 킴버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온다. 집 뒤편에 낯선 자전거가 한 대 세워져 있고 핸들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수건이 하나 걸려 있는데, 분명 킴버가 여행가기 전에 말끔히 세탁해서 욕실 선반에 개어둔 세수 수건이었다! 화가 치미는 순간, 어둑한 집 안쪽에서 시커먼 형체가 나타난다. 재빨리 2층 쪽으로 사라진 그림자를 똑똑히 본 킴버는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문을 두드리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다. 소란을 감지하고 집 밖으로 나온 옆집 할머니는 킴버에게 더욱 더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킴버가 떠난 바로 다음 날 '아주 착하고 순한' 청년이 이삿짐을 들고 집에 들어왔으며, 할머니에게 6개월간 이 집을 빌리기로 했다며 예의 바르게 인사도 했다는 것이다. 임대라니? 처음 듣는 소리였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부터 한 뒤, 킴버는 또 한 사람을 떠올린다. 전 남자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가브리엘이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썩 아름답지 않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보통 사람 같으면 망설일 일이겠지만 킴버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악바리라는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의 부

러움과 시기, 비난이 섞인 평가는 킴버가 어떻게 이토록 젊은 나이에 이렇게 번듯한 집을 장만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시 예상대로 가브리엘은 상황을 대충 듣자마자 10분 내로 가겠다고 대답한다. 잠시 후 경찰도 도착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험악한 얼굴의 경찰은 킴버의 호소를 다 믿지 않는 눈치였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좀 전에 그림자로만 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랜스 윌슨이라는 이름의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는 옆집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계약서를 꺼내 보였다. 경찰이 받아 든 계약서를 본 킴버는 기겁한다. 임대인 성명에 자신의 이름과 누군가 조작한 서명까지 떡 하니 기입되어 있었다. 이런 계약서는 쓴 적도 없다며 킴버는 열심히 설명하지만 경찰은 일단 서류가 확인된 이상 랜스 윌슨이 정말로 가택 침입자인지, 킴버가 사기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랜스 윌슨은 계약 당시 만난 집주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킴버와 '아주 많이 닮았다'며 아리송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의 '내가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의 여유 있는 태도와 실실 웃는 얼굴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킴버는 순간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 그를 주먹으로 치고 만다. 폭행을 휘둘렀다며 당장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찰이 으름장을 놓는 사이, 랜스 윌슨은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킴버의 귀에 속삭인다. "그래,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이 못된 여자야, 내가 다 봤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25년 전,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언니 미셸은 킴버의 기억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비밀이 되었고 이혼한 남편은 물론 바로 근처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 다이애나나 한 때 연인이었던 가브리엘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 날의 비밀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집 열쇠를 다 바꾸고 제 집인 양 차지하고 앉은 낯선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이 일이 그저 돈이나 집을 노리고 벌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은 킴버는 이제 무단 침입자뿐만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잠식해온 과거의 그림자와 대면해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한다.

가브리엘은 지인까지 모두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다이애나는 오갈 곳이 없어진 킴버가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그런데 가브리엘의 조사로 킴버가 아예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케빈,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이복 남매로 미셸 언니까지 다 함께 한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는 아이였다. 그가 이 동네에 왜 나타났을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킴버에게 남긴 재산, 특히 이 집을 가로채려는 교묘한 수작일까? 그의 정체와 의도를 파헤치기 시작한 킴버는 언니 사건 하나가 아닌, 그 동안 저지른 수많은 과오가 한꺼번에 자신을 덮치고 복수하려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킴버의 부정직한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것, 가브리엘과 케빈의 수상한 관계가 서서히 밝혀지고, 킴버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언니를 죽인 진범은 누구일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라 베네딕트(Laura Benedict)는 『The Abandoned Heart』, 『Charlotte's Story, Bliss House』 등의 소설을 발표했고,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 NPR 등에 단편소설도 기고해 왔다. 소설 『A Paler Shade of Death』로 에드가 상 후보에 올랐으며 ITW 스릴러 상 후보로도 지명됐다.

Updates for
THE STRANGER INSIDE
Laura Benedict

I'm pleased to send along a starred PW review of the forthcoming thriller/psychological suspense **THE STRANGER INSIDE** by Edgar Award and ITW Thriller Award -nominated Laura Benedict. I've also included some wonderful blurbs Laura has received, and the link to download the final pdf is also below.**Mulholland Books/Little Brown US & Mulholland Books UK will publish the book in Feb. 2019)

- **Publisher's Weekly review**: https://www.publishersweekly.com/978-0-316-44492-7

★ The Stranger Inside

Laura Benedict. Mulholland, $27 (352p) ISBN 978-0-316-44492-7

Kimber Hannon, the narrator of this outstanding thriller from Benedict (the Bliss House series), returns home to St. Louis after four days in Lake of the Ozarks, Mo., to find that the key to her home doesn't work. A neighbor tells Kimber that she, Kimber, rented the place to a guy named Lance Wilson six months ago. The police refuse to allow Kimber to enter her home after Lance shows a lease she signed. When Kimber accidently knocks him down, he whispers, "I was there. I saw what you did," and then has her arrested for assault. Those words petrify Kimber, who believes they refer to the death of her sister, Michelle, more than 20 years earlier and the role Kimber may have played in it. The stakes rise when she believes that a nosy neighbor was murdered instead of dying in an accident as the police conclude. Kimber's complicated personality and unusual family life drive the ever-twisting, surprise-filled plot. Angry and jealous as a child and teenager, and now a cold, prickly adult, Kimber is the epitome of the unreliable narrator. Readers will enjoy vicarious chills in her company. *Agent: Susan Raihofer, David Black Agency. (Feb.)*

- **Blurbs/Advance Praise:**

"Suspenseful and moving, *The Stranger Inside* gripped me from the first page. Laura Benedict is at the top of her game."

—Meg Gardiner, author of Into the Black Nowhere

"Can you imagine the nightmare of a stranger taking over your house? The terror you would feel? With *The Stranger Inside*, Laura Benedict turns her unique voice in suspense to this elegant scary mystery, where nothing is as it seems and one woman's truth is shattered by the hidden secrets of her past."

—**J.T. Ellison**,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Lie to Me***

"*The Stranger Inside* is an intense, fascinating character study that will have you rooting for Kimber while she turns her life around and tries to stay alive."

—**Catherine Coulter**,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Paradox***

"Benedict spins a story driven by deceit on the part of most of the principals, with tension increasing with the body count and the twists and turns that continue to the very end."

—***Booklist***

"*The Stranger Inside* is a twisty, compelling thriller. Laura Benedict takes hold of your throat and doesn't let go until the final page."

—**Jeff Abbott**,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The Three Be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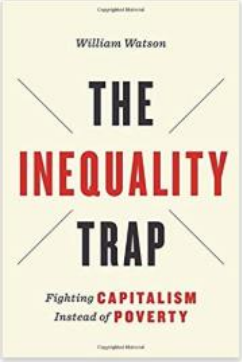
"Compelling characters, lush settings, complex emotions--all in a clever plot and spiced with a hint of darkness. These are the trademarks of Laura Benedict's writing. I've followed her career for years and she never disappoints. This new book, *The Stranger Inside*, is no exception. But a warning--once you pick it up, you will yield your life to the power of a great storyteller."

—**Carolyn Haines**, ***bestselling author of the Sarah Booth Delaney mysteries and The House of Memory***

- **Foreign sales:**

  UK: Mulholland UK simultaneous pub.
  Germany: Droemer
  Turkey: Arkadya

NON-FICTION



제목: THE INEQUALITY TRAP
가제: 불평등의 덫
(부제: 빈곤이 아닌 자본주의와의 싸움에 대하여)
저자: William Watson
출판사: University of Toronto Press
발행일: 2015년 9월 16일
분량: 240 페이지
장르: 경제

* "불평등에 관한 책을 독자가 읽다가 졸지 않도록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자가 그 일을 해냈다. 정보가 풍부하고, 생각을 일깨우고, 심지어 위트도 넘친다." -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제금융교수, 데이빗 백커스(David Backus)
* "엄청난 정보와 위트가 담긴 책. 우리 시대의 과제를 빈곤 퇴치가 아닌 부의 척결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반박한다" - 「더 아틀란틱(The Atlantic)」 편집자, 데이빗 프럼

우리는 뉴스에서 '불평등'이라는 글자만 봐도 자동으로 없애야 하는 것,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로 인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불평등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체의 1 퍼센트 남짓한 사람들이 나머지가 가져야 할 부를 모두 싹쓸이한 바람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소식들도 함께 떠오른다.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처럼 불평등을 당연히 척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시각은 크게 잘못됐다고 이 책에서 지적한다. 빈곤을 해결하는 대신 불평등 자체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것은 전제부터 틀린 주장이고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의 불씨를 꺼트리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성실한 사람과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인정 받는 '유익한' 불평등의 중요성과 소득, 재산에 대해 한 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고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불평등을 널리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즉 나쁜 면도 있지만 유익한 면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서 각각의 특징을 고려한 공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불평등이라는 단일 목표를 정하고 유형이 뭐가 됐든 싸잡아 없애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들이고도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허무한 결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불평등에만 주목하는 시각은 전체적인 소득 분포 중에서 최상위권에만 관심이 쏠리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반대쪽 끝,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덫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소득

분포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절망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삶이 반드시 가난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대를 이어 헤어날 가망이 없는 빈곤에 그야말로 갇혀버린 사람들, 현대사회에서 대다수가 일상으로, 혹은 당연한 필수품처럼 여기는 편리한 기계와 여가생활 등 숱한 경험이 우주 저 편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관심과 시간, 자원이 결과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불평등 해소를 외치며 빈곤이 아닌 자본주의를 상대로 싸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심지어 불평등도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고 비도덕적 행위를 고발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정책, 그리고 특권을 제한하고 기회를 장려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 불평등 중에서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거나 '유익한' 불평등만 남길 수 있다. 현대 경제의 복잡한 특성을 명료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접할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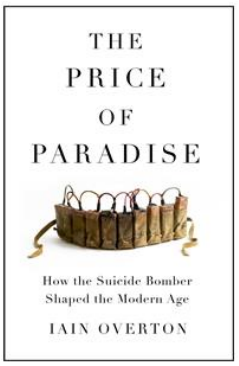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불평등의 덫
1. 역사: 속편
2. 부자가 될 만한 자격
3. 지니 계수의 등장
4. 1 퍼센트는 어떤 사람들인가?
5. 유익한 불평등도 나쁜 것일까?
6. 빈곤
7. 기회
8. 반점령운동

<저자 소개>

윌리엄 왓슨(William Watson)은 맥길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캐나다 정책연구소 네 곳에 소속되어 있다. 「내셔널 포스트」, 「오타와 시티즌」에 정기기고가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THE PRICE OF PARADISE
가제 : 천국의 대가
저자 : Iain Overton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 560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탐사보도 전문기자 겸 인권 운동가가 전하는 자살 폭탄의 엄청난 영향력 –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틀을 바꿔놓은 과정과 원인**

폭탄을 설치해서 특정 위치를 아예 날려버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 건물, 시설을 모조리 망가뜨리는 공격이 전쟁에서나 일어나는 일로만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항공기를 납치하여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사례나, 우리가 잘 아는 도시락 폭탄처럼 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듯 폭탄을 던지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십 년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피해를 낳은 새로운 형태의 폭탄이 나타났다. 바로 '사람 폭탄'이다. 사람이 직접 폭발물이 장치된 조끼를 입고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점화 스위치를 누르고 스스로를 폭파시키는 자살 폭탄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최악의 폭발 사고 10건 중 7 건이 자살폭탄이었고 2016년 한 해에만 총 28개국에서 469건에 달하는 자살폭탄 사건이 발생했다는 통계만 봐도 급증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어쩌다 이 같은 무차별적이고 예측 가능성도 극히 희박한 공격 방식이 갑자기 늘어났을까? 왜 자살폭탄은 무고한 십대들이 신나게 환호하는 맨체스터의 초대형 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을 하러 온 가족들로 메워진 축구 경기장 같은 곳을 노릴까? 어쩌다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거의 매주 세계 곳곳에서 자살폭탄으로 시민들이 다치고 숨졌다는 뉴스가 줄을 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스스로를 폭탄으로 만드는 일에 가담하고,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할까? 전 세계 분쟁지역을 찾아 다니며 탐사보도를 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은 의문의 답을 찾아간다. 이를 위해 자살 폭탄이라는 끔찍한 무기가 맨 처음 등장한 때로부터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되짚어보고,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참담한 고통과 더불어 전 세계가 이 소름 끼치는 테러를 막기 위해 강경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전체가 감수해야 하는 대가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약자들의 무기'로도 일컬어지는 자살 폭탄의 주된 대상은 불특정 시민 전체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발각될 위험도 적다는 점에서 역사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효율이 뛰어나다. 그 영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넘어 배후를 찾아 반격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유럽과 미국이 국경 수비를 더 엄격히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게 만든 채찍이 되었을 뿐 아니라 테러가 벌어진 국가는 물론 세계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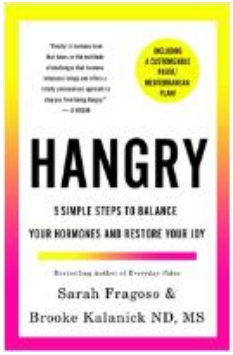
겁에 질린 시민들 틈에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률도 정당화되고 도무지 끝도, 방향도 보이지 않는 '테러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1882년 러시아 황제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등장한 자살 폭탄이 현재까지 7만 2,0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부상자는 최소 그 두 배를 발생시켰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저자는 이 엄청난 피해의 대부분이 과거 10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산주의와 냉전, 현대의 '테러와의 전쟁'까지 세계 정세를 바꿔놓은 굵직한 변화들은 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저자는 이와 같은 폭력의 형태가 전 세계에 확산된 배경을 추적하고, 러시아 무정부주의자들부터 일본 가미가제 대원, 헤즈볼라 소속 군인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자살 폭탄 사고의 생존자들, 이란이나 이라크, 파키스탄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자살 폭탄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게 된 사람들의 제보 내용을 종합해서 전한다. 역사와 여행기, 증언, 인터뷰를 조합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무기가 된 자살 폭탄의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힌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유토피아의 무기
2. 신성한 바람
3. 순교자의 등장
4. 야만주의로의 퇴행
5. 천국에서 죽다
6. 천상의 집
7. 악마의 얼굴
8. 전 세계에 퍼진 지하드
9. 테러국가
10. 유럽의 해안에서
11. 내면의 악마
(이하 생략, 총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이언 오버튼(Iain Overton)은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버크벡 대학교에서 인권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다. 앰네스티 언론상, BAFTA 상 등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이자 인권 운동가로 전 세계 20곳 이상의 분쟁지역 상황을 보도했다. BBC, ITN 등에서 일한 후 현재 런던에서 자선단체 'Armed Violence'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저서 『Gun Baby Gun』은 CWA 골드 대거 상 논픽션 부분 결승에 올랐다.



제목 : HANGRY
가제 : 행그리
(부제 :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고 즐거움을 되찾는 5단계 기술)
저자 : Sarah Fragoso, Brooke Kalanick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6월 4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건강

* "호르몬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다루고 개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책이 마침내 탄생했다!" - 베스트셀러 『The Virgin Diet』의 저자 JJ 버진
*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여성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책" - 베스트셀러 요리책 저자 미셸 탐(Michelle Tam)

푹 쉬었다 싶은데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작은 자극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러고 왜 사나' 같은 암담한 생각이 수시로 들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는 편이 더 빠를 정도로 직장에 다니든, 육아에 매어 살든, 나이나 살아가는 방식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여성들이 피곤에 절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별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다 그렇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다, 같은 별 도움도 안 되고 기분만 더 망치는 조언으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될 뿐만 아니라 딱히 병에 걸린 것도 아니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다. 원시인 식단을 널리 알린 대표적인 인물과 자연요법 전문가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이 총체적 난국의 배경은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한다. 갑상선 저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폐경 전후에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들, 자가면역 기능 저하 등 다들 '기분 탓'으로 여기지만 구체적인 원인이 분명 존재하며, 그 대부분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두 저자의 설명이다. 이에 두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함께 연구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호르몬 균형 되찾는 기술을 상세히 소개한다.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크게 좌우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의 기능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본 후 각자의 생활 패턴과 성격,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이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된다. 총 138장에 달하는 흑백 이미지와 함께 구체적인 4주 실천계획도 함께 소개한 유익한 건강서다.

두 저자는 호르몬(Hormone)과 분노(Angry)를 결합하여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 피로와 짜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행그리'로 지칭한다. 두 저자가 밝힌 이 책의 목적은 행그리 상태에서 벗어나 행복을 느끼는 것, 즉 호르몬이 조화를 이루고 몸과 마음에 꼭 필요한

영향이 제대로 공급되며 사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저자는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원칙과 평상시 먹고 운동하는 방식의 큰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5대 습관'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두 가지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과 함께 모두 똑 같은 방식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에게 맞는 형태로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 알도스테론, 인슐린, 갑상선호르몬, 글루카곤, 렙틴, 그렐린, 아디포넥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장호르몬까지 여성의 기분과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각 호르몬의 기능을 설명해서 왜 그와 같은 습관과 노력이 필요한지 상세한 이해를 돕는다.

늘 바쁘게 살아가느라 건강을 제대로 챙길 틈이 없는 여성들이 스트레스와 점점 악화되는 건강에 조금 더 집중해서 편안하고 가볍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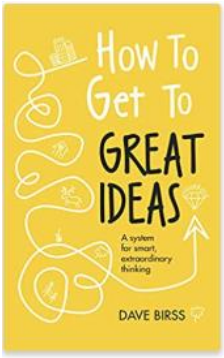
머리말
1부.
1장.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해서 행복도 느끼지 못할까
2장. 스트레스로 폭발해버린 여자들
3장. 행그리를 행복으로 바꿔줄 다섯 가지 원칙
4장. 행그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5장. 운동도 제대로 하자
2부. 호르몬을 바로 잡고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개개인에게 꼭 맞는 4주 치유 계획
6장. 행그리 호르몬 바로잡기: 1주차
7장. 행그리 호르몬 퀴즈
8장. 행그리를 자극하는 탄수화물: 2주차
9장. 나만의 완벽한 운동법: 3주차
(이하 생략, 총 11장과 부록 A-D로 구성)

<저자 소개>

새라 프래고소(Sarah Fragoso)는 『The Everyday Paleo』의 저자로 원시인 식단을 블로그에 최초로 소개했다. 해당 저서는 이어서 나온 요리책까지 총 5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브룩 칼라닉(Brooke Kalanick)은 공인 자연요법 의사이자 기능성 의학 의사이다. 자연요법 박사학위와 함께 침술과 한의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Ultimate You』가 있다.

제목 : HOW TO GET GREAT IDEAS
가제 : 멋진 아이디어의 탄생
(부제 : 영리하고 비범한 사고체계)
저자 : Dave Birss
출판사: Nicholas Brealey
발행일: 2019년 4월 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저자는 지금껏 만난 어떤 강연자보다도 독창적인 인물이다.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늘 창의적인 사람이다." - Allweb Events의 다르코 불디오스키(Darko Buldioski)
* "저자는 새로운 컨셉과 사고방식에 마음을 열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다" - Digital Doughnu의 그레이엄 루딕(Graham Ruddick)

도무지 참신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머리 싸매고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중대한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일상 생활에서 좀 더 현명하게, 간편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늘 하던 방식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가에게는 이런 아이디어의 '벽'이 지속되면 효율적인 혁신이 불가능해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직원들 역시 뻔한 방식으로 늘 뻔한 성과만 내는데 급급하게 된다. 광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떠올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 비결을 강연과 잡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대다수가 어렵게 느끼는 창의적 사고의 모든 것을 재미 있게 설명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것일까?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으며, 누구나, 어떤 회사와 조직이든 지금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단언한다. 신경과학, 심리학, 행동 경제학 등 인간의 창의성에 관한 여러 분야의 탄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독창적이면서 귀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새로운 방식을 알려준다. 창의성의 '벽'이 등장하는 원인을 찾고 스스로 생각에 일종의 압박을 가해서 더 멀리,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과 함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독려하는 방법도 포괄적으로 소개된다.

책은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창의력이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2부에서는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이어 3부에서는 개개인이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고 4부에서는 회사와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창의력을 '창의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행동'으로 구분한다. 창의적인 행동이란 춤을 배우는 것부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예술 활동처럼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무언가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익히는

것,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사람들이 비결을 '연습만이 길이다'라고 밝히는 것으로도 이미 검증된 방식을 가리킨다. 이처럼 창의적인 행동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다면 창의적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전략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해도 각각에 필요한 기술과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표출하고 좀 더 자유롭게 사고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저자는 그 동안 여러 조직과 업체에서 효과가 검증된 전략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솟아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상세히 소개한다. 창의력이라는 무형의 개념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설명하고 모두가 얻고자 하는 독창성과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간단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

1부. 창의력에 대한 새로운 생각
창의력은 정확히 뭘까: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전부는 아니다
창의적 사고의 발전: 야수에서 바흐까지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 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길로: 평범해지지 말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자
동력: 영혼에 불을 지피는 것
2부. 창의력의 구조
올바른 절차: 위대한 아이디어로 향하는 길 찾기
기술 키우기: 창의력은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는다
3부. 개인의 창의성
나 자신을 알라: 자신만의 창의적 능력 찾기
마음의 틀 만들기: 머릿속에 좋은 재료 채워 넣기
4부. 기업의 창의성
아이디어 킬러: 정말 회사도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
아이디어 관리: 최상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이끄는 법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늘 하던 대로만 하는 습관은 이제 때가 됐다

<저자 소개>

데이브 버스(Dave Birss)는 Poke, OgilvyOne and McCann Worldgroup 등 영국 여러 창작 업체에서 20년간 광고 제작자로 일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의 홍보를 도왔다. 「Large for The Drum Magazine」의 편집자로도 일한 경력이 있으며 전 세계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의했다. 온라인 매거진 OpenForIdeas.org의 설립자 겸 편집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A User Guide to the Creative Mind』가 있다.

제목 : QUESTIONNERING
가제 : 문제는 문제
저자 : Joseph Bradley
출판사: Networlding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4월 26일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경영

* "편향과 어젠더, 전략적 현실을 토대로 '뻔한' 해결책만 찾으면서도 잘못된 줄 몰랐던 경영자들에게 지혜를 안겨주는 책" – MIT 부교수, 리처드 J. 캔트웰(Richard J. Cantwell)
* "알기 쉬운 용어와 직접 실행하면서 검증된 강의 전략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질문 공학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 – 브라운 대학교, 라비 펜드세(Ravi Pendse)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고 당연히 답을 맞췄다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답을 골라 당황한 경험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것이다. 문제를 풀 때부터 영 아리송하고 답을 찾느라 애를 먹었던 경우라면 틀려도 납득이 되는데, '이건 건졌어!'라고 생각한 문제가 오답으로 확인되면 화도 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따지게 된다. 이런 경우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긴 실수일 때가 아주 많다. 빨리빨리 푸느라 문제를 대충 읽는 바람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착각한 것이다. 침착하게 다시 읽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문제가 비단 시험 문제를 풀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조금만 늦어도 이윤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리더들은 회사와 조직이 처한 수많은 문제를 되도록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실질적인 성과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례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저자는 이 책에서 문제를 무작정 해결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틀린 문제를 붙들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아까운 자원과 시간은 부질없이 흘러가고, 원하는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것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할수록 꼭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일에 모두가 집중할 수 있고, 자연히 더 빠른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답을 찾게 된다. 저자는 이처럼 질문을 '제대로' 하는 기술을 '질문 공학'이라 이름 붙이고 크고 작은 조직, 기업의 경영자들이 훌륭한 질문 공학자가 되는 방법과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위트 넘치는 글로 찬찬히 알려준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 '질문 공학으로 가는 길'에서는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결코 큰 혁신을 이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답이 뭘까,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반복적인 틀린 질문을 유발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해서 간결한 질문으로 만드는 황금 법칙 세 가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2부 '질문 공학자가 되는 법'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원하는 결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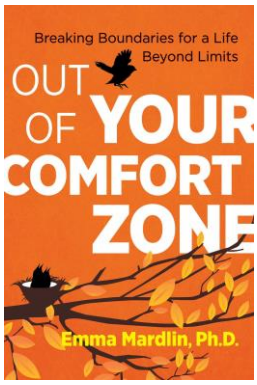
얻기 위해 질문 공학을 적용하는 보다 상세한 방법을 알려준다. 미처 보지 못한 영역이지만 현재 처한 문제와 깊이 관련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자가 직접 개발한 '브래들리 블라인드 스팟 지도'와 함께 이 지도를 토대로 명확한 질문을 만드는 절차,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양질의 자료를 찾고 인간만이 지닌 감정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마지막 3부 '네 가지 가치 있는 질문'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야의 리더, 기업가, 개인이 꼭 기억하고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할 종합적인 질문 제 가지를 제시한다: 침묵을 택할 수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보유한 데이터의 보안 상태는 충분한 수준인가? 승진을 노려야 할까, 아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향상시킬까, 대체할까?
모든 산업체와 조직이 원하는 혁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누구나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모형을 제시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경영서다.

<목차>

1부. 질문 공학으로 가는 길
1장. 질문 공학이란 무엇일까
2장. 질문 공학의 황금 법칙 1. 너무 빨리 실패하지 말자
3장. 질문 공학의 황금 법칙 2. 가치의 흐름을 뒤집어라
4장. 질문 공학의 황금 법칙 3. 다양화로는 충분치 않다
2부. 질문 공학자가 되는 법
5장. 브래들리 블라인드 스팟 지도: 제대로 된 질문 하기
6장. 집합 지점의 경계
7장. 데이터에 귀 기울이는 법
8장.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라
9장. 가속도를 내라
10장. 비용 절감: 올바른 해답, 틀린 질문 (이하 생략)
3부. 네 가지 가치 있는 질문 (12-15장)

<저자 소개>

조셉 브래들리(Joseph Bradley)는 시스코(Cisco) 디지털 & IoT 전문서비스국 글로벌 부대표 겸 스위스 경영대학 IMD의 '디지털 비즈니스변화를 위한 글로벌 센터' 소속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사람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며 강연가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제목 : OUT OF YOUR COMFORT ZONE
가제 : 나를 가두는 안전지대
부제 : 불안의 틀을 깨고 나아가기
저자 : Emma Mardlin
출판사: Findhorn Press
발행일: 2019년 1월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심리/자기계발

"트라우마로 심각한 불안장애에 시달리던 나는 항불안제 없이 생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을 만나고 책 속의 조언을 나에게 적용하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 자스민 도우티

"죽으려고 했던 내가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100% 선생님 덕분이다. 선생님의 적절한 태도와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빛을 발하는 유머 덕분에,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선생님이 나에게 준 모든 도움은 이 책에 담겨 있다." - 빈센트 셰이

* 공포를 극복하는 단계별 가이드
* 심리적 한계와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 감정적, 신체적 기술 제공
* 나의 심리적 안전범위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안전지대 테스트(Zone Test)' 제공
* 공포의 여러 종류를 살펴보고, 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지, 공포가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
* 불안을 해소하는 음식과 그것들이 어떻게 영양적으로 몸에 작용하는지
* 공포가 없는 인격에는 어떤 심리적 특징이 있는지
*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작은 활동들을 제공, 불안을 타파하기 위한 테크닉 제공, 직관을 활용하는 툴, 나아가 자신감을 계발시키기 위한 실천가능한 초미니 방법들 제공

누구나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신만의 생각과 활동 범위가 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정의한다. 아주 작은 성취라도 이루려면 사람은 자신만의 안전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익숙한 자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걸어 나와 공포를 마주하고 극복해 본 사람이라면 결과가 좋든 그렇지 않든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자유와 충일함을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Emma Mardlin 박사는 우리가 인생에 내재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공포와 마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면 불안

이 우리를 덮치고 만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우선 자신의 '안전지대'가 어디까지인지 테스트를 해보게끔 한다. 나아가 그녀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공포를 이해하고, 큰 불안없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늘려갈 수 있는 초미니 활동 가이드를 통해 조금씩 안전범위를 늘려가도록 돕는다. 그녀가 제시하는 이런 실천 방법들을 통해 조금씩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그녀의 가이드를 따라가다보면, 책의 말미에서는 다시 '안전지대' 테스트를 하여 이 책을 통해 얼만큼 스스로 변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도 그녀의 책을 읽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만큼, 그녀가 제시하는 방법은 효과적이다. 극도의 공포든, 그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설명한 한계점이든, 이 책은 그러한 불안함과 공포를 변화시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

서문: 범위 테스트: 안전지대 넓히기

1. 안전지대 테스트: 자신의 안전지대 레벨 결정하기
   안전지대 테스트
   안전지대 차트

2.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일곱가지 요소
   30일 회복탄력성 키우기

3. 공포와 우리안에 공포가 있는 이유 이해하기
   세상의 단 두 가지 감정
   인지적 행동 사이클
   공포는 어디서 오는가?

4. 단단한 토대를 위한 중요한 단계
   당신의 필수 도구
   생각하는 법 바꾸기
   습관적 생각과 그 습관 바꾸기

5. 사고방식 지배하기
   무너지지 않는 사고방식의 구성 요소
   별도의 안전지대 경계가 없는 인격의 25가지 특징

6. 안전지대 경계 없애기: 공포와 불안함 완전히 해소하기
   숨바꼭질 게임
   공포와 잘못 이해한 정체성
   불안 타파하기
   감정을 뽑아내는 연습
   공포를 먹어치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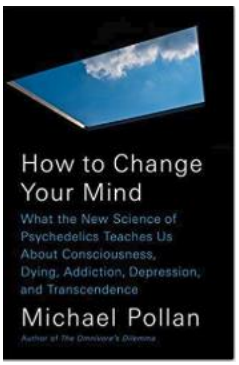
7.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얻고 삶을 멋지게 만들기
   범위 없음의 경지에 도달하기와 내려놓기
   "예스" 우주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직감을 가리키는 것들
   비약적인 발전 이전의 실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 안전범위가 없는 곳

8. 안전지대 테스트 다시하기
9. 액션 리스트
10 마지막 말

<작가 소개>

Emma Mardlin 박사는 임상치료전문가이며, The Pinacle 런던과 노팅엄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녀는 작가로서, 트레이너로서도 활동하며 극도의 공포감, 공황, 삶의 한계와 불안의 벽을 넘지 못해 주저 앉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MIND BODY DIABETES TYPE 1 AND TYPE 2의 저자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HOW TO CHANGE YOUR MIND
가제 : 마음을 바꾸는 약
저자 : Michael Pollan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과학/의학사/에세이

* New York Times' 10 Best Books of 2018 로 선정
* "포괄적이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책. 저자는 최고의 과학 저술가로 꼽히면서도 필요하면 물질주의적 해석만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기꺼이 타파할 줄 안다." - 「가디언」
* "환각제를 농담거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고 벗어나기 힘든 좁은 시각을 해결해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 - 「보스턴 글로브」

20세기 중반, 서구 사회를 뒤바꿔놓은 두 가지 대형 사건이 벌어졌다. 성격도, 원인도 완전히 다르지만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는 공통분모가 있는 이 사건은 바로 핵폭탄의 등장과 환각제의 발명이다. 지금은 환각제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다수가 뭔가 불법적이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이용하는 나쁜 물질로 인식하지만 처음 등장한 당시에 핵폭탄에 맞먹을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었다.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저서로 여러 번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저자는 '마약'으로만 치부되는 환각제가 의학과 과학에 몰고 온 놀라운 발전을 상세히 설명한다. 다른 약물로는 치료하기 힘든 우울증과 중독, 불안과 같은 질환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환각제의 특성과 더불어, 정신질환으로 정식 진단을 받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가 직접 환각제의 효과를 체험해보면서 느끼고 알게 된 사실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한다. 환각제를 둘러싼 뿌리 깊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처음 세상에 등장한 후 시대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활용되어 차근차근 짚어본다.

대표적인 환각제 LSD는 1938년에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과학자가 뜻하지 않게 합성한 물질이다.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을 만들던 그는 어쩌다 '리세르그 산'으로도 불리는 이 물질을 만들어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 5년이 지나 모르고 직접 극소량을 먹게 된 후에야 그는 자신이 정신작용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환각제인 실로시빈은 합성 물질이 아닌,

수천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던 자연 물질이다. 바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의식을 치를 때 사용했고 아즈텍 사람들이 '신의 살'이라 칭한 버섯에 함유된 물질이다. 1955년, 맨해튼에서 한 은행가와 아마추어 진균학자가 맥시코 남부에서 이 신기한 버섯을 채취하고 2년 뒤 「라이프」 지에 버섯의 희한한 환각 효과를 발표하면서 마침내 전 세계에 그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 저자는 오로지 심리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던 정신 질환이 뇌 화학물질의 이상작용에 따른 결과라는 엄청난 인식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환각제 덕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법의 약'으로 여겨지던 이 약물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의 근원처럼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지위가 확 바뀐 과정을 상세히 추적한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환각제의 진가를 다시 밝히려는 과학자, 의사들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 배경과 새로 시작된 연구를 통해 밝혀진 환각제의 놀라운 효과를 소개한다. 환각제를 맹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장된 효과는 냉정하게 지적하고 실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빠짐없이 공개한다. 저자의 세밀하고 열정적인 이 탐구 과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며, 환각제,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정신 작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새로운 문
1장. 르네상스
2장. 자연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 맺음말
3장. 역사: 1차 물결
 1부. 약속
 2부. 추락
 맺음말
4장. 여행기: 지하 세계로의 여행
 여행 1. LSD
 여행 2. 실로시빈
 여행 3. 5-MeO-DMT ('두꺼비 독')
(이하 생략, 총 6장과 에필로그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클 폴란(Michael Polla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Cooked』, 『Food Rules』, 『In Defense of Food』, 『The Omnivore's Dilemma』, 『The Botany of Desire』를 쓴 저술가로 「뉴욕타임스 매거진」에도 오랫동안 글을 기고해 왔다.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글쓰기 강사로도 일해왔다. 2010년 「타임」 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Updates for

HOW TO CHANGE YOUR MIND
Michael Pollan

HOW TO CHANGE YOUR MIND was chosen for the New York Times' 10 Best Books of 2018, along with EDUCATED.

We are delighted for Michael, as his research is truly unique and up to date.

The news is up on our website –
https://www.curtisbrown.co.uk/news/how-to-change-your-mind-and-educated-chosen-for-nytimes-10-best-books-of-2018

And here is the complete NYT list –
https://www.nytimes.com/2018/11/29/books/review/best-books.html